

중국의 곡물가격 상승 원인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곡물수급간의 불균형과 곡물생산 코스트의 상승이라고 하는 2개의 문제다.

공업화와 도시화의 템포가 가속화 한 것이 곡물생산과 소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곡물수급의 불균형을 일으킨 중요한 원인이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수입이 분명하게 향상됨에 따라 식용유, 고기,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알, 유제품, 가공식품의 소비도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젓소원료 작물과 사료용 곡물의 수요량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사료용 곡물과 공업용 곡물은 대두와 옥수수를 주로하기 때문에 대두와 옥수수의 수요량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07/08년도에는 옥수수는 전년과 비교하여 3.6% 증가하였고 대두는 5.7% 증가했지만 벼의 수요량은 감소하였다. 또 공업화, 도시와의 템포가 가속화함으로써 대량의 경지가 전용되어 경지면적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006천ha, 연평균 67만ha 이상이 감소하였다. 이대로 가면 2020년까지 경지의 감소는 67만ha를 상회할 것이다. 다음으로 농촌의 청·장년의 노동력이 대규모로 이동하여 농업생산에의 투입이 줄어들었으며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사태를 가져왔

다. 이러한 요소는 곡물의 지속적 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4년간 상황을 봐서 알 수 있듯이 곡물의 풍작은 계속되고 있지만 단지 회복적 증산에 지나지 않고 지금도 사상 최고 수준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곡물의 증산 폭이 작아지고 있어 2006년도와 비교해서 2007년도는 2.3% 저하하였다. 그중 대두는 12.3% 감소되었다.

수급 쌍방을 정리해보면 수년간 중국의 곡물공급은 기본적으로 균형이 잡히고 총량부족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만큼 심각하지 않았지만 옥수수 대두 등의 생산과 수요와의 모순이 더욱더 표면화하고 있어 곡물의 구조적 상승이라고 하는 국면이 나왔다.

또 공업화와 도시화의 가속은 곡물생산비의 상승을 재촉하였다. 총 곡물생산비는 생산코스트와 토지코스트로 나눌 수 있지만 생산코스트는 또 원자재비와 서비스비, 인건비, 코스트로 세세하게 나눌 수 있다. 공업화와 도시화의 건설에 의해서 토지의 수요량이 급증하여 경지면적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공업용지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정도는 아니다.

농촌의 토지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동시에 대량의 농촌의 청장년 노동력이 비농산업으로 이전하여 고용 노동력의 인건비가 상승하여 이것에 의하여 생산코스트를 구성하는 인건비

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밖에 공업화와 도시와의 발전은 원유와 원재료 등 1차제품의 가격상승을 가져오는 것과 동시에 하부의 농업생산 수단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농업용 도구나 사료, 상품이 되는 축산물 화학비료, 농약 등의 가격상승을 가져왔다. 이상의 요소가 얹혀 곡물생산 코스트를 밀어 올렸던 것이다.

美유기농업제품 인기에 그림자 짙어

미국의 소비자사이에 환경,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의지하지 않고 생산된 '유기농 상품'이 큰 주목을 끌고 있지만 그 인기가 최근 짙은 그림자를 만들어 내고 있음이 미 컨설팅 회사 등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일반상품의 1.5~2배라는 가격이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WSL사가 실시한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유기농 상품은 몸에 좋다」라고 대답한 소비자는 45%, 「환경에 좋다」는 48%다. 2년 전의 조사에서는 양쪽 모두 54%였다. 유기농의 인기가 피크를 지났음을 보여주는 숫자다. 또 하트맨 그룹사의 조사에서도 유기농 상품을 이용하는 일이 있다고 라고 대답한 소비자는 2005년의 73%에서 올해는 69%로 감소하였다.

소비자단체 Organic Consumer Association의 로니코민즈씨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가격이 첫번째 원인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미 농무성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내

에서 우유 소매가격은 1갤런(약 38l)당 3달러78센트(약 3,965원)이다. 이것에 대해 자연식품 슈퍼매장에서는 유기농우유가 1갤런당 6달러99센트(약 7,332원)으로 팔리고 있다. 「유기농 상품에 대한 과거 5년 사이에 제일 많은 불평은 고가라는 것, 특히 올해는 경기 침체가 가계를 압박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코민즈씨는 말한다.

이 사람에 의하면 유기농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 중 약 2%는 농가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슈퍼에서의 구입에 비하여 꽤 저렴하기 때문에 이 움직임은 앞으로도 한층 더 계속될 전망이다.

또 WSL사의 조사에서는 「유기농」의 표시에 불신감을 가지는 소비자가 42%에 이르렀다. 미 농무성은 유기농상품의 인증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내츄럴」「그린」「에코」등 혼동하기 쉬운 라벨도 많아 소비자의 올바른 지식과 인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Y